

## News

### 임대차 3법, 31일 시행...계약갱신청구권 카드권 세입자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 행사 가능...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

###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점수제...대출 문턱 해소

연합뉴스

금융위와 금감원,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 회의를 하고 업종별 준비 현황을 점검...법령 개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점수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  
현재 1~10등급 체제인 신용등급제는 1~1천점으로 표시되는 신용점수제로 개편...금융회사는 앞으로 CB로부터 받은 신용점수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 자체적 신용위험평가

### DGB금융 2분기 당기순이익 969억원...비이자이익 부문 약진

연합뉴스

DG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1천85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2% 감소...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2분기에 선제적으로 대손 총당금을 적립  
비은행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DGB생명도 지난해보다 각각 56.7%, 48% 증가한 481억원, 22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DGB캐피탈은 순이익이 180억원으로 22.4% 증가

### 보험사, 하반기 자본확충 증가 전망...발행금리 '부담'

디지털타임스

올해 1~7월까지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푸른현대생명, 흥국화재가 후순위채를 발행했지만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 수요 확보에 어려움 겪어...  
후순위채·영구채 수요 확보 어려워...발행금리 갈수록 상승...RBC비율 100%대 보험사 10곳 하반기 자본확충 준비...보험사에 대한 투자 심리 보수적으로 전환

### 한국은행,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지난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1일에서 11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  
대상기관: 국내은행 16개...증권회사 17개(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PD 중 하나)...보험사 6개(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 및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정부, 대기업 CVC 허용...지분 100% 보유, 외부자금 40% 이내로

연합뉴스

일반주회사가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 CVC 설립 허용...자기자본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금지...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 투자 불가...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 다른 금융업무 영위 불가

### ELS 많이 찍으면 부채에 더 반영...'자본 취약' 증권사 과다 발행 규제

한국경제

금융위와 금감원,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 분자에 반영되는 부채 금액이 더욱 늘어나  
자기자본 대비 원금 비보장형 ELS 등 발행잔액이 50~100%인 증권사는 부채로 반영되는 비율이 현재 100%에서 내년 말 113%, 2022년엔 125%로 높아져...

### 은성수,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코로나 감안해 결정"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쳐..."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 그걸 감안해 결정하겠다"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아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6개월 연장했다...우리는 은행과 만기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